

소유동사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분석과 수여동사 구문과의 인접성에 대한 연구*

조경순(전남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소유 구문의 개념구조와 수여 구문
과의 인접성 |
| 2. 기존 논의 검토와 문제 제기 | 5. 결론 |
| 3. 소유의 개념과 소유 구문의 특징 | |

1. 서론

의미속성은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를 구성하지만,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의미속성을 어휘 형태나 구문구조로만 명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의미속성은 의미구조로 구조화되고 의미구조는 다시 통사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국어 문장의 다양한 통사·의미론적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5385). 또한, 이 논문은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06회 전국학술대회(2016. 6. 11.)에서 발표한 “국어 소유 구문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특징을 통해 의미속성에 대한 정교한 접근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여러 의미속성 중 소유성에 주목하며 소유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유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살피고 이를 반영하여 소유 구문의 주개념 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 소유성은 '있다'나 '가지다'와 같은 어휘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속성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개념인 소유성이 소유동사의 어휘 개념구조와 논항구조를 거쳐 통사구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필 수 있으며 존재성, 수여성 등 다른 의미속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수련(2000:116)에 따르면 소유 개념은 세계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의미속성은 어휘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소유성이나 소유 구문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있다'나 '가지다'의 구문론적 특징이나 보조용언 쓰임과 같은 문법화 양상을 주로 다루는 등 개별 어휘 차원에서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룬 소유 표현의 특성에 대해 장미라(2002:60)에서도 개별 술어 중심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유 개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소유 구문들 간의 상관성에 주목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소유성과 존재성 또는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 간의 관계를 살피고 있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특정 어휘를 중심으로 존재성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었으며, 소유 동사들의 의미 확대와 변화의 기제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격 구조 변화와 같은 주요한 통사적 변화와 소유성과 어휘 개념구조, 통사구조와의 연결 양상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선행 연구들은 소유성을 지닌 개별 어휘들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살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소유동사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대표 어휘를 중심으로 소유동사의 구문론적 특징에 관해 다루다 보니 소유 구문의 의미 특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개념 구조에 대한 전반적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소유 권리나 소유물은 소유주와 분리 및 이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여 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소유성과 소유 표현에 대한 논의에서는 존재 표현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여

표현과의 인접성도 살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소유성은 본원적 의미속성으로서 구문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인접 의미 즉 존재나 수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먼저 소유성과 소유 구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보편적인 개념인 소유성이 국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살펴 의미속성으로서 소유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어 소유 구문의 주개념 구조를 설정한다. 문장 주개념 구조 명세화는 어휘 내적 구조와 통사구조를 연결하는 과정으로서, 소유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징 분석과 인접 의미와의 비교 등을 통해 소유 구문의 의미 특질과 개념 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 구문론적 특징 분석을 통한 문장 주개념 구조 설정 과정은 소유 구문의 명세화뿐만 아니라 소유 동사의 다양한 격 구조와 구문적 특징 등을 수렴한다는 점, 특히 소유 구문과 수여 구문의 의미적 연관성을 언어 내적 구조의 분석을 통해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기존 논의 검토와 문제 제기

소유성 및 소유 구문에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박양규 (1975:94)에서는 국어의 소유 표현이 기술하는 의미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소유는 본래의 의미인 존재에 대한 실용적 측면에서의 해석으로 정의하였다. 이 논의와 같이, 소유성은 존재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있다’나 ‘가지다’에 소유성이 내재함을 전제하고 소유 구문의 특징을 다루는 경우도 많다. 즉, 소유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있다’나 ‘가지다’ 등 어휘와 관련한 구문론적 특성이나 의미적 특성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소유성의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먼저, 소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사전적 정의

ㄱ. 가지고 있음(표준)

ㄴ. 자기 것으로 가짐(고려)

ㄷ.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음, 또는 그 재산(연세)

※ 법률적 정의: 물건을 전면적·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일

소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지는' 행위나 상태를 소유로 보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소유주가 대상을 지배하는 일로 보고 있다. 비록 사전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를 통해 소유의 기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사전적 정의로 소유성과 소유 구문의 언어학적 특성을 살피기 어렵다. 김천학(2012:126~127)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유라는 개념 그 자체를 규정짓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유를 표현하는 구성이나 형태를 한정하는 어려움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성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 논의에서는 소유의 의미론적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있다'나 '가지다'와 같은 특정 어휘나 'N1의 N2'와 같은 통사 형식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데, 장미라(2002:60)에서 소유는 구문의 구성 성분 사이의 관계 개념이며 구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결국 국어 소유성에 대한 논의는 명사구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한 분석과 '있다'나 '가지다'와 같은 개별 어휘에 대한 구문론적 연구로 귀결된다.

먼저, '있다' 구문의 존재 표현을 중심으로 소유 표현을 다룬 논의로, 김영미(1995)에서는 '있다'가 존재 의미를 원형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존재 표현뿐만 아니라 명제의 보존 확정 양상과 담화 사실을 확인하여 공유하는 의지 표현 수단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신선경(1996:188)에서는 '있다' 구문의 소유 의미를

1) 박양규(1975), 이수련(2000), 김천학(2012) 등에서 소유를 언어학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Heine(1997:84)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유는 인간과 친족, 신체, 물건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산물과의 관계까지 나타내는 등 언어학적 기술의 범위를 넘어서며, Seiler(2008:8)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유 구성의 의미에는 세계 지식(world knowledge)과 문맥적 속성(contextual properties)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있다’ 자체의 하나의 독립된 하위 의미로 보기보다는 ‘X가 Y에 있다’라는 ‘있다’의 존재 의미에서 파생되는 해석 상의 차이로 보았다. 이 논의(1996:167)에서는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 간의 구별은 ‘화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에 관하여 말하느냐’라는 ‘화자의 통보론적 초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있다’ 구문의 소유 의미로의 해석은 통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통보론적인 토대 위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있다’ 구문의 소유 의미는 ‘X가 Y에 있다’에서 ‘있다’ 동사의 정보 취약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명사구들 간의 의미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미로 보았다.

전영철(2000)에서는 존재문이란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개체를 담화의 범위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문장으로 파악하고, 존재문에 음운론적 초점이 할당된다는 점과 맥락화된 존재문이라는 범주를 도입하여 ‘처소구+명사구+존재동사’의 명사구 위치에 한정 표현이 출현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수련(2000:116)에서는 ‘있다’ 같은 장소풀이씨나 ‘이다’ 같은 잡음씨로 소유 표현을 나타내는데, 소유 개념은 ‘장소’나 ‘존재’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또 소유라는 비장소적 개념도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동석·김용하(2001:15)에서는 ‘있다’의 논항 구조를 설정하였는데, ‘있다’가 존재동사로서 ‘-에’, ‘-에게’와 결합한 처소역 논항과 대상역 논항을 취하는 구조와, ‘있다’가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험을 나타내는 소유동사로서 심리동사와 동일한 구조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항 구조에 근거하여, ‘-에’, ‘-에게’와 결합한 처소역 논항이 소유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뒤섞기에 의해 처소역 논항이 대상역 내부의 PRO를 통제할 수 있는 처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부차적인 의미라고 하였다. 구명철(2004:190)에서는 소유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존재동사가 사용되고, ‘나는 딸이 하나 있다’, ‘나는 아파트가 한 채 있다’처럼 내재적인 소유 관계와 획득된 소유 관계에서 존재동사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어에서 존재와 소유가 ‘있다’ 구문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존재 표현과 소유 표현의 관련성을 논의한 연구가 많다.

- (2) ㄱ. 바구니에 빨래가 있다.
 ㄴ. 민수에게 공이 있다.

예문 (2ㄱ)에서는 대상이 특정 처소에 존재한다는 의미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예문 (2ㄴ)은 ‘민수’가 소유주로서 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공이 ‘민수’라는 처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인지 맥락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 파악을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소유 표현은 존재 표현과 밀접한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이 두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3) ㄱ. X(대상)가 있다. 철수가/그 책이 있다.
 ㄴ. X(대상)가 Y(처소)에 있다. 그 책이 책장에 있다.
 ㄷ. X(대상)가 Y(소유주)에게 있다. 그 책이 나에게 있다.

(3ㄱ)과 (3ㄴ)에서는 유정물 또는 무정물인 주어가 일정한 구상적/추상적 공간에 위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3ㄷ)에서는 X가 Y에 위치한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Y가 소유주로서 X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3ㄱ)은 대상이 존재함을, (3ㄴ)은 대상이 특정 장소에 존재함을, (3ㄷ)은 대상의 소유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다르다. 기존 논의들에서는 존재 속에 소유가 포함되어 있거나 파생된 것으로 보았으나, ‘있다’는 그 의미에 따라 통사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논항과 의미역 역시 각 유형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존재와 소유를 대등한 의미속성으로 보아야지 하나의 의미속성에서 다른 의미속성으로 확대되었다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유 표현에 관련된 다른 연구 축으로써 구문에 나타난 명사구의 관계를 통해 소유 표현을 살핀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소유에 대한 개념을 소유주와 소유물과 같은 소유 사건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로 풀이하고 있다. 고석주(1996)에서는 ‘있다’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있다’ 구문에 나타나는 두 NP 사이의 관계에서 추론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장미라(2002:61~62)

에서 소유는 소유주와 소유물 사이에 성립되는 일종의 관계 개념으로, 소유 관계는 인접성과 권리(소유권)를 바탕으로 하는데, 소유주에게 물리·심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소유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소유 구문의 두 NP는 특정한 의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어 소유 표현에 대한 몇 문제가 남아 있다.

먼저, 동사와 NP 사이의 의미 관계로만 소유 표현을 분석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있다’의 상보적 반의어인 ‘없다’는 예문 (4)와 같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어떤 특정 장소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없다’의 긴 부정문에서는 소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 (4) ㄱ. 민수가 집에 없다.
 ㄴ. 민수에게 책이 없다
- (5) ㄱ. *민수가 집에 안 없어^{?)}없지 않아.
 ㄴ. 민수에게 책이 없지 않아./*안 없어

예문 (4ㄱ)에서 주체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부정하는 ‘없다’ 구문은 예문 (5ㄱ)과 같이 부정문이 불가능하다.²⁾ 이에 비해, 예문 (5ㄴ)은 민수에게 최소한

2) 말뭉치에서 검색한 아래 예문 (ㄱ)과 (ㄴ)에 쓰인 ‘없지 않’의 의미는 다르다. (ㄱ)에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면, (ㄴ)에서는 ‘있다’로 교체해도 된다. 예문과 같이 ‘없다’의 부정은 소유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를 어휘의 본원적 속성으로만 한계를 짓는 것은 국어의 소유 구문을 어휘 내적으로만 제한하여 이러한 언어 현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ㄱ. 문정림 의원도 “이엽우피소에 대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가 가지고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적은 없지 않은가”라며 “이엽우피소의 성분 분석, 적응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다소 모호한 해명으로 한발 물러섰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0_94500017.HTML?input=1195m)

책이 1권 이상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서는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일 수도 있다. 물론, ‘없다’의 부정은 ‘있다’의 의미를 가리킬 수 있으나, 통사적으로 [[민수에게 책이 없-]지 않아.]와 같이 구조로 바라본다면, 과연 소유의 의미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호해진다.

또한, 수량을 드러내는 상태성 용언 구문에서도 발화 상황에 따라서는 소유 상태를 전제할 수 있다.

(6) ㄱ. 민희는 집에 자신의 책이 많다/적다.(*그런데 책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ㄴ. 민희는 집에 자신의 책이 여러 권 있다.

‘많다/적다’의 사전적 정의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기준에 미치지 못하다”이다. 예문 (6ㄱ)에 전형적인 소유 표현을 나타내는 ‘있다’나 ‘가지다’ 등의 어휘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예문 (6ㄴ)과의 의미적 대등성을 고려한다면 ‘민희가 책이 최소한 1권 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유 동사가 쓰이지 않았어도 문장 의미는 소유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 표현은 특정 어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 전체의 의미를 고려하며, NP의 의미 관계 및 서술 어휘의 특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유의 개념과 소유 구문의 특징

국어의 소유 구문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등의 이슈가 스토리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장된 면도 없지 않다.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의 이슈는 스토리지 업체보다 오히려 서버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2919>)

- (7) 가. 주운 돈을 가지다
 나. 그는 친구가 준 목걸이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
 다. 귀금속을 장롱 속에 간직하다
 르. 나에게 1000원이 있다.
 무. 남은 이익은 모두 내가 먹어라.
 바. 철수는 A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예문 (7)은 소유 주체가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존재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양정석(1997:214~215)³⁾에서는 ‘있다’를 중심으로 존재와 소유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NP에 NP이 V]형에 해당하는 ‘있다 1, 2, 4’ 유형은 존재의 의미를, [NP이 NP이 V]형에 해당하는 ‘있다 3’ 유형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⁴⁾ 또한 양정석(1997:220)에서는 “그 때 영자가 잘못이 있었다.”가 어색한 것은 [NP이 NP이 있다] 꼴의 문장과 [NP에게 NP이 있다] 꼴의 문장 사이에 소유와 존재의 차이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소유란 소유권으로서의 의미라고 하며 소유권의 개념까지 살폈다. 그리고 소유 동사에 대해서도 [NP이 NP이 V]에 분포하는 ‘있다’류 동사를 소유동사라 부르고 이 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뒹다’류 느낌 동사의 차이점을 살피고 있다. 양정석(1997)의 논의는 존재와 소유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이를 통사·의미론적으로 살폈으며 이를 ‘있다’의 각 유형에 따라 대응하는 어휘의미구조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 매우 밀접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존재 표현과 소유 표현을 구분하는 의미적 양상에 주목하

3) 본고에서는 양정석(1992)를 상당 부분 수정 및 개정한 양정석(1997)의 논의를 참고한다.

4) 양정석(1997:223)에서는 ‘있다’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가. 있다 1: 너는 집에 있어라.
 나. 있다 2: P가 형님댁에 아들이 있다. 책상에 책이 있다.
 다. 있다 3: 할아버지가 집이 있으시다. 할아버지께서 집이 있으시다.
 르. 있다 4: 신은 있다.

고자 한다. 통사 구조와 의미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의미적 차이를 통해 통사상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으며, 양정석(1997)에서는 ‘있다’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있다’를 포함하여 ‘가지다, 지나다, 소유하다’ 등의 동사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 동사들에서 보이는 의미적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있다’ 구문에 존재와 소유가 나타난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8) ㄱ. 사전이 책장에 있다.
 ㄴ. 초원에 얼룩말이 있다.
 ㄷ.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ㄹ. 철수에게 사전이 있다.

예문 (8ㄱ)은 무정물인 대상이 어떤 처소에 위치하는지를, (8ㄴ)은 유정물인 대상이 어떤 장소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데, 두 문장은 어떤 주체가 ‘사전’과 ‘얼룩말’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보기 힘들다. (8ㄷ)과 (8ㄹ)은 대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8ㄷ)은 영혼의 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에 비해 (8ㄹ)은 사전 소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적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예문 (8)과 같이 ‘있다’는 여러 구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각 문장에서 의미는 다르다.⁵⁾ 따라서, 존재 표현과 소유 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의미적 특성을 찾아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먼저, 소유 주체는 의지 또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

- (9) ㄱ. 민지가 카페를 가지고 있다.
 ㄴ. A그룹은 계열사로 B회사를 가지고 있다.⁶⁾

5) 이 때의 ‘있다’를 다의적으로 처리하거나 동음어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동음어로 처리하는 것은 의미상 연관성이나 언어적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6) A그룹은 일종의 법인으로서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적인 권리 능력이 있다는 특징이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관계에 대해 Lehmann & Shin & Verhoeven(2000:8)에서는, 소유자와 피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소유 관계에 개입하는 두 개체의 유정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유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개체 중 유정성이 더 높은 것이 소유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이 피소유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유 구문의 소유주는 Seiler(2008:10)에 따르면 [+animate], 더 자세히는 [+human], 더 자세히 표현하면 [+EGO]라고 하였다. 국어에서도 소유 표현은 행위주가 주체가 되어 대상을 의지적으로 소유함을 나타내는 결과를 드러낸다.

- (10) 가. 영화는 품성을 지녔다.
- 나. 그는 부적을 지닌다.
- 다. 그는 어릴 때 모습을 지니고 있다.
- 르. 그는 유언을 마음 속에 지니고 있다.

예문 (10가, 다, 르)은 추상물이, 예문 (10나)은 구상물이 ‘지니다’와 쓰이고 있는데, 소유에 대한 의지는 의지성 부사어와 결합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1) 가. 영화는 곧은 품성을 ?늘/*확고하게/*굳이 지녔다.
- 나. 그는 부적을 늘/확고하게/굳이 지닌다.
- 다. 그는 어릴 때 모습을 늘/?확고하게/*굳이 지니고 있다.
- 르. 그는 유언을 마음 속에 늘/확고하게/굳이 지니고 있다.

예문 (11)에서 ‘품성’이나 ‘모습’은 의지성 부사어인 ‘늘, 확고하게, 굳이’ 등과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지만, ‘부적’이나 ‘유언’은 결합하는 것이 자유롭다. ‘늘, 확고하게, 굳이’가 주체가 어떤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 주체는 소유 대상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있다. 즉, 소유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

- (12) ㄱ. 여행 가방이 있다./여행 가방을 가지다./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다.
 ㄴ. 손바닥에 흉터가 있다./^{??}손바닥에 흉터를 가지다./손바닥에 흉터를 가지고 있다.
 ㄷ. 철수는 연구실에 실험기기를 ^{??}가진다/가지고 있다.
 ㄹ. 민희는 손에 책을 ^{??}가진다/가지고 있다.

또한, ‘가지다’ 구문은 주어와 목적어를 소유하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예문 (12ㄴ)과 같이 행위자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가지다’를 단독적으로 쓸 수 없다. 또한, 예문 (12ㄷ, ㄹ)과 같이 ‘가지다’가 단독적으로 쓰이며 구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처소 명사가 쓰이면 어색하다. 따라서, 소유 구문에서 소유 주체는 [+의지]를 의미자질로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 주체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소유 상태가 소유 주체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3) ㄱ. 철수는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건물을 소유하고/가지고 있다.
 ㄴ. 철수는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건물을 (여전히/굳이) 소유하고/가지고 있다.
 ㄷ. 철수는 왼쪽 팔을 *(여전히/굳이) 소유하고 있다.
 ㄹ. 철수는 왼쪽 장갑을 가지고 있다.

예문 (13ㄱ, ㄴ)은 소유 주체에게 이득이 예상되거나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여전히/굳이’와 같은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수식어 자연스럽다. 이에 비해, 신체 부위 등 소유주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⁷⁾

7) 익명의 심사자는 “그녀는 잘록한 허리에 큰 골반을 가지고 있다.”는 직관상 소유의 의미인데, 골반은 주체인 그녀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분리]이고 이에 따라 [분리]를

다음으로 소유 대상은 다른 소유 주체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

- (14) ㄱ. 철수는 건물을 받아 소유하고 있다.
 ㄴ. 철수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민지에게 주었다.
 ㄷ. *철수는 왼쪽 팔/유언/어릴적 모습을 받아 소유하고 있다.
 ㄹ. *철수는 왼쪽 팔/유언/어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민지에게 주었다.

소유 대상은 이종열(2008:183)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수련(2006), 김천학(2012)에서도 소유 의미 관계를 양도 불가능과 양도 가능으로 나누며, 김천학(2012:141)에서는 양도 가능한 경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양도 가능성을 변별적 의미자질로 구체화하여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구분하고자 한다. 예문 (14ㄴ)에서 소유 대상인 ‘건물’은 다른 주체로부터 양도 받아 다시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는 구문을 생성할 수 있다. 즉, 소유 표현은 양도 가능 대상물을 획득하여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소유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주와 분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 구문에 [+분리]라는 의미자질 설정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예문 (14ㄷ, ㄹ)과 같이 존재 구문에서는 논항의 의지에 의해 처소에서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리]를 의미자질로 설정할 수 없다.

- (15) ㄱ. 철수는 어제까지 사전을 가지고 있었다. 철수는 지금 수희에게 그 사전을 잠시 빌려주었으나 내일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다.
 ㄴ. 수희는 이웃에게 망치를 빌렸다. ??수희는 내일 다른 사람에게 그 망치를 팔 것이다.

소유 구문의 필수 요소로 설정하는 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예문 (13ㄷ)과 같이 해당 예문은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수식이 어려우며(??그녀는 여전히/굳이 잘록한 허리에 큰 골반을 가지고 있다.), 논항의 의지에 의해 ‘골반’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유 구문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다.

예문 (15ㄱ)에서 소유주는 철수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철수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미라(2002:61~62)에 따르면, 사전은 철수에게 심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사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후행절의 주체인 철수의 소유를 전제하고 있다. 예문 (15ㄴ)에서 수희에게 망치가 존재하고 있지만 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⁸⁾ 또한, 예문 (14ㄷ, ㄹ)에서도 ‘왼쪽 팔, 유언, 어릴적 모습’은 다른 주체나 대상과 관련한 수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는 소유 행위에서는 주체는 대상을 가지고 있거나, 양도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데 반해 존재 행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소유 구문에서 소유 주체는 소유 대상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양도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라는 의미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의 의미적 차이를 이원분류표를 이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 구문	존재 구문
소유에 대한 주체의 의지	+	-
소유 주체의 소유 대상에 대한 권리	+	-
소유 주체와 소유 대상의 분리	+	-

<표 1>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의 의미적 차이

기존의 논의에서도 본고와 같이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장미라(2002)에서는 ‘있다’ 구문은 존재와 소유의 양 특성을 가지는데, 소유 구문은 처소에 대응하는 소유주가 문두에 오며 주격 중출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통사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있다’는 소유주의 의도성이나 소유 관계 형성에 능동적인 참여자의 존재를 가정하지 못함에 비해, ‘가지다’ 구문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 논의(2002:71)에서는 ‘가지다’의 모든 다의적 의미를 소유 상태로 전제하고 신체-부분 관계나 은유적 의미까지

8) 신선경(1996)에서는 소유를 존재 의미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존재와 소유는 밀접한 관련은 있되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 중심이 아닌 구문 중심으로 소유를 접근해야 한다고 보아, 구문에서 <표 1>과 같은 의미 자질이 보일 때로 소유 구문을 한정하고자 한다.⁹⁾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기반으로 삼아 소유 구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6) 국어 소유 구문의 개념

- ㄱ. 문장 의미: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대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음.
- ㄴ. 의미 자질: [+의지], [+권리], [+분리]

이러한 개념 규정을 통해, 소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 어휘가 서술어로 쓰이거나 특정 구조로 구성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구문의 의미 조건과 통사 구조가 충족되어야 ‘소유성’이 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있다’와 같은 어휘가 경우에 따라서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으로 쓰이는 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앞서 살핀 ‘없다’의 부정문이나 수량 구문의 소유 표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자질의 차이는 NP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 관계를 반영한 것인데, 이 NP 관계는 동사의 문장 주개념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존재 표현 구문과 소유 구문의 주개념 구조를 명세화하여 구분하고 아울러 소유 구문과 수여 구문의 연관성을 살펴도록 하겠다. 이러한 분석은 소유 구문과 수여 구문의 연관성을 일반적인 추론 수준에서 넘어서 언어 내적 구조를 통해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9) 김천학(2012:145)에서도 소유물의 수량이 표현되는 경우는 동사 ‘있다’가 계사로 바뀌어도 소유의 의미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소유물의 수량이 표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문에서 [+의지], [+권리], [+분리]라는 의미 자질이 나타날 때를 모두 소유 구문으로 보고자 한다.

4. 소유 구문의 개념구조와 수여 구문과의 인접성

소유 구문의 개념구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 선형적 분석이나 순환적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미 함수나 의미 특질 등을 명세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Jackendoff(1990)의 개념의미론을 방법론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프레게(G. Frege)는 어떤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 성분들의 의미의 함수이고 그 구성 성분들이 결합되는 방식의 함수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합성성의 문제를 Jackendoff(1990)의 개념의미론에서는 개념 함수와 특질, 부가어 규칙 등으로 통사구조와 의미구조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개념의미론에서는 동사의 어휘 개념구조는 본원적인 의미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논항과 의미 원소의 유기적 결합을 나타내고, 통사구조와 별도로 존재하지만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연결 이론을 통해 소유 구문의 개념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Jackendoff(1990)의 개념의미론에서는 문법 조직을 하나의 개념구조를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부가어 대응 규칙을 통해 통사구조와 문장 의미를 연결한다. 이 점은 소유 구문의 격 구조가 달리 나타날 때도 하나의 어휘 개념구조로 설명할 수 있으며, 소유 구문, 존재 구문, 수여 구문의 의미 특질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유용하다. 소유 구문의 본원소를 명세화하기 위해 소유 표현의 전형인 ‘가지다’를 통해 소유 구문의 주 개념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

(17) ‘가지다’의 사전적 의미

- ㄱ. 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
- ㄴ. 자기 것으로 하다.
- ㄷ. 직업, 자격증 따위를 소유하다.
- ㄹ. 모임을 치르다.
- ㅁ. 아이나 새끼, 알을 배 속에 지니다.
- ㅂ. 거느리거나 모시거나 두다.

스.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사전에서 풀이하는 ‘가지다’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면¹⁰⁾, ‘가지다’는 주체가 대상을 소유함을 나타내는데 획득이나 취득에 의한 대상의 소유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다’는 상태보다는 행위에 초점이 놓여 있으므로 사동성을 지니며 의미 특질로 poss를 지닌 어휘로 설정할 수 있는 바 ‘가지다’의 어휘 개념구조는 다음과 같이 명세화할 수 있다.

(18) ‘가지다’의 어휘 개념구조

ㄱ. 민수가 책을 가지다.

ㄴ. [[민수]_i [[책]_j [가지다]]]는 다음에 대응된다.

ㄷ. [CAUSE([Thing 민수]_i, [Go Poss([Thing 책]_j, [TO [민수]_i]])]

예문 (18ㄱ)의 어휘 개념구조인 예문 (18ㄷ)은 사동성 구문으로 민수에게 책의 소유가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Jackendoff(1990)에서는 AFF는 작용자와 피작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작용 의미층을 구성하는 주류 함수로 AFF([THING], [THING])에서 첫째 논항은 작용자(Actor)이고, 둘째 논항은 피작용자(Patient)이다. 이때 대립의 관계는 AFF⁻이고 여기서 둘째 논항은 부정적으로 작용 받는 것(피작용자)이다. 도움의 관계는 AFF⁺로 표시되며, 여기의 둘째 논항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받는다(수혜자). 허용의 관계는 AFF⁰로 표시되는데, 비대립을 의미한다.¹¹⁾ 이를 소유 구문의 어휘 개념구조에 적용하여 보면, AFF는 소유 주체와 소유 대상의 관계를 어휘 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유 주체와

10) 사전의 풀이로 ‘가지다’에 내포된 소유의 개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한국어 사용자가 ‘가지다’를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가지다’의 소유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어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11) Jackendoff(1990)에 대한 논의는 조경순(2009:297~298)과 조경순(2014:373~374)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상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에서 검색된 ‘가지다’의 용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 ‘가지다’의 말뭉치 용례¹²⁾

- ㄱ. 어떤 장소에서도 멋진 식물의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또 곤충촬영에도 105mm이상의 렌즈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 ㄴ. 사회주의국가의 미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헝가리인들은 크지는 않아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 이젠에 밝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에게 민박을…….
- ㄷ. 저번 일요일에도 겨울 이불이랑 옷가지를 가지고 아빠랑 오셨었어.
- ㄹ. 아이들은 방바닥에 임시로 깔았던 스티로폼을 가지고 싸움 놀이를 하기도 했다.
- ㅁ. 외로움을 훨씬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이 사진을 가지고 있던 분이 우리와 친척뻘 되고 우리 어머니를 잘 아시는 분이라니…

예문 (19) ‘가지다’ 용례에서는 주체가 [+의지], [+권리], [+분리]라는 소유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만족하고 있다.¹³⁾ 예문 (19)에서 소유 주체와

12) 말뭉치 용례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를 이용하였다. 검색 방법은 각 소유동사의 어근으로 검색하였으며, 본고는 통계 분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된 결과에서 소유성, 존재성, 수여성을 잘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구문을 선별하여 용례로 활용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소유성과 존재성의 언어 관계를 기반으로 삼아 두 의미 속성의 차이를 살필 계획인데, 이 연구에서는 정확한 통계 과정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13) 아래 예문은 익명의 심사자가 제시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서는 소유 상태가 아닌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ㄱ. 곤충 촬영에 친구의 렌즈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다.
- ㄴ. 동생의 옷가지와 이불을 아빠가 가지고 오셨다.
- ㄷ. 남의 집 스티로폼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다.
- ㄹ. 내 사진을 가지고 있던 분은 엄마가 아는 분이다.

본고에서는 Jackendoff(1983:191)에서 분리 가능 소유를 소유권과 임시 관리의 경우로 나눈 바와 같이, 위 예문도 비록 [권리]는 예문 (19)보다는 그 정도성이 약하지만 권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유와 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유 구문으로

소유 대상의 관계 양상을 검토하면 소유 주체와 소유 대상은 AFF⁰관계로 볼 수 있다. 소유 대상인 ‘렌즈, 집, 이불, 옷가지, 스티로폼, 사진’을 소유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소유하는데, 소유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주체가 대상을 일방적으로 소유하며 대상과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 \text{CAUSE}([\text{Thing } \alpha]^A, [\text{Go}_{\text{Poss}}([\text{Thing } \beta], [\text{TO } [\alpha]])]), \\ \text{AFF}^0([\]_a^A, \])$$

예문 (20)은 이를 지표화한 것으로 작용 의미층에서 A표시된 α 는 으뜸힘 (agonist)으로서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띠며, 관계 의미층에서 ‘가지다’는 소유를 나타내므로 어휘 기재항에 특질 Poss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존재 구문은 다음과 같다.

(21) ‘있다’의 말뭉치 용례

- ㄱ.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제일! 그런데 이 집에 어머니가 있고 마누라가 있음을 당신은 아는가? 여자 없는 집은 쓸쓸함, 그것이다. 남자들은 더욱...
- ㄴ. 현재 한양대, 대신대, 호남대 등에 이 학과가 있고 한국관광대학에는 관광행정학과가 있다. 호텔 국제판매직원 외국어 실력을 4년 동안 열심히...
- ㄷ. 사람에게는 가장 공상의 말을 달리기에 합당한 곳ियो. 이곳에도 산도 있고 냇물도 있고 삼림도 있고 꽃도 피고 날짐승, 길짐승이 날고 기던...

예문 (21)에서 ‘어머니, 마누라, 학과, 산, 냇물, 삼림’ 등은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소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처소에 위치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존재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 구문에서는 작용자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존재 구문의 어휘 개념구조는 다음과 같이 명세화할 수 있다.

- (22) ㄱ. 철수가 집에 있다.
 [STAY([a]^A, [AT()]), AFF⁰([]_a^A,)]
 ㄴ. 책상에 책이 있다.
 [BE(a, [AT()])]

어휘 기재항 (22)는 존재 구문에 쓰이는 ‘있다’의 어휘 개념구조이다.¹⁴⁾ (22ㄱ)은 의지를 가진 주체가 일정한 처소에 존재함을 나타내고, (22ㄴ)은 의지가 없는 대상이 일정한 처소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예문 (20)과 (22)의 어휘 개념구조를 통해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의 의미적 차이를 의미 특질 poss와 사동성 CAUSE로 명세화할 수 있다.¹⁵⁾

그런데 예문 (19)의 소유 구문은 소유 대상을 문장의 주어로 바꾸어 아래와 같이 존재 구문으로 변환할 수 있다.

- (23) ㄱ. 렌즈가 있다.
 ㄴ. 집이 있다.
 ㄷ. 이불이랑 옷가지가 있다.
 ㄹ. 스티로폼이 있다.
 ㅁ. 사진이 있다.

예문 (23)은 예문 (19)의 소유 대상을 주어로 삼아 존재 구문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14) ‘있다’가 소유 구문에 쓰일 때는 ‘가지다’와 동일한 어휘 개념구조를 가진다.
 15) 양정석(1992, 1997)에서도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의 어휘 개념구조를 설정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말뭉치 용례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어휘 개념 구조에 의미 특질 등을 구체화하여 명세화하였다.

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윤평현(2008:236)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의미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이미 사실임이 보장된 다른 문장을 전제라고 하였다.

- (24) ㄱ. 순호의 여동생은 아주 예쁘다.
- ㄴ. 순호는 여동생이 있다.

(24ㄱ)의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24ㄴ)이 사실로서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24ㄱ)은 (24ㄴ)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예문 (19)와 (23)의 의미적 관계에서도 소유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유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존재는 소유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¹⁶⁾

- (25) 렌즈가 있다. 철수가 렌즈를 가지고/지니고/소유하고 있다.

예문 (25)에서 존재 구문인 “렌즈가 있다.”는 소유 구문인 “철수가 렌즈를 가지고 있다.”의 전제로 볼 수 있다. 임지룡(1990:324)에서는 전제와 함의는 서술어의 성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며, 예문 (26)과 같이 사실 동사/비사실 동사, 판단 동사, 함의 동사 등이 보문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 (26) ㄱ. 한수는 입사시험에 떨어진 것을 후회한다.
- ㄴ. 아버지는 한수가 게으르다고 꾸중했다.
- ㄷ. 한수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성공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소유 구문 역시 보문을 전제하는 데 그 보문은 존재 구문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소유 구문이 존재 구문을 전제로

16) 비록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의 어휘 개념구조에서 공통적인 구조와 의미 특질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화용론적 개념인 전제를 의미 구조와 결부하여 논의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구문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연관성을 ‘전제’ 관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지는 것처럼, 소유 구문이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여 구문의 전제로 쓰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¹⁷⁾

- (27) ㄱ. 그는 월급봉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월급봉투
i를 건넸다.
 ㄴ. 철수는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철수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다.
 ㄷ. 영희는 꽃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영희에게서 꽃을
받았다.

앞서 수여 구문에 대한 조경순(2008)의 논의에 따라 수여주인 ‘그, 철수, 영희’가 대상인 ‘월급봉투, 선물, 꽃’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수여주인 ‘아내, 부모님, 민수’에게 소유 대상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수여로 본다면, 소유는 수여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 (28) ㄱ. 그는 아내에게 월급봉투를 건넸다. † 그런데, 그는 월급봉투를
안 가지고 있었다.
 ㄴ. 철수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 † 그런데, 철수는 선물을
안 가지고 있었다.
 ㄷ. 민수가 영희에게서 꽃을 받는다. † 그런데, 영희는 꽃을 안
가지고 있었다.

수여 구문에서 수여주는 수여 대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예문 (28)에서 수여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여 구문은 소유 구문을 보문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유 구문과

17) 이수련(2006)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소유 표현을 살폈는데, 여기에서도 ‘주다’ 구문의 원형과 확장을 살피며 ‘주다 받다’ 구문의 상관 관계와 소유물의 이동 방향을 살폈다. 본고에서는 소유와 수여의 상관 관계뿐만 아니라 존재-소유-수여로 이어지는 세 구문의 의미적 연관성을 살피고 각 구문의 차이를 어휘 내적 관계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수여 구문은 유사한 어휘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경순(2008)에서는 행위주와 수혜주 사이에 대상에 대한 소유 변화가 일어난 동사를 수여동사로 제한하며, 수여동사가 이루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어휘 개념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 (29) ㄱ. 그는 아내에게 월급봉투를 건넸다.
 ㄴ. 철수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다.
- (30) ㄱ. 통사 구조: x 가 y 를 z 에게 V
 ㄴ. 개념 구조: $CS^+([x], [GO_{Poss}([y], [FROM [x] TO [z]])])$,
 $AFF^+([x], [z])$

(29ㄴ)의 어휘 개념구조는 행위주로부터 수혜주에게로 대상에 대한 소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수혜주는 동사의 논항이며 필수 성분으로, 첫째 논항인 작용자와 셋째 논항인 수혜주는 도움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수여동사 범주는 통사 구조보다 구문이 갖는 의미적 현상인 소유의 변화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다음 구문도 수여동사 구문에 포함하였다.

- (31) 철수가 영희에게서 꽃을 받았다.

이 예문에서는 y 가 z 에서 x 로 이동을 했는데,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소유주는 논항 z 이고 논항 z 의 작용으로 논항 x 가 이 사건에서 이익을 받으므로, ‘받다’ 구문은 다음과 같은 논항 구조와 개념 구조를 갖는다고 하였다.

- (32) ㄱ. 통사 구조: x 가 y 를 z 에게서 V
 ㄴ. 개념 구조: $[GO_{Poss}([y], [FROM [z] TO [y]])]$,
 $AFF^+([z], [x])$

소유 구문의 어휘 개념구조와 비교하면 두 구조 모두 소유의 이동을 나타내는데, 소유 구문은 작용자가 대상을 자신에게로 이동을 시키고, 수여 구문은

작용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피작용자에게 수여한다는 점에서 소유 구문의 논항 및 함수 등을 수여 구문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소유 구문과 수여 구문이 전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어휘 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전제는 화용론적 요소이기 때문에 어휘 특질이나 함수로 어휘 개념구조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각 어휘 개념구조의 비교를 통해 그 내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존재 구문, 소유 구문, 수여 구문의 의미적 연관성을 어휘 개념구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은 일정한 처소에 대상이 위치하고 있음을,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은 대상이 처소에 위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 특질 poss를 공통적으로 어휘기재항에 포함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러한 공통성을 전제로 포착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국어의 의미속성 중 소유성에 주목하며 소유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유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살피고 이를 반영하여 소유 구문의 주개념 구조를 설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소유성은 본원적 의미속성으로서 구문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인접 의미 즉 존재나 수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소유 구문의 의미적 특징은 첫째, 소유에 대한 주체의 의지를 가진다는 점, 둘째, 소유 주체가 소유 대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 셋째, 소유 주체와 소유 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존재 구문은 이러한 특징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기반으로 삼아 소유구문의 문장 의미는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대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보고, 그 의미 자질로서 [+의지], [+권리], [+분리]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념 규정을 통해, 소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 어휘가

서술어로 쓰이거나 특정 구조로 구성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문의 의미 조건이 충족되어야 ‘소유성’이 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소유성의 특징을 어휘 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Jackendoff (1990)의 개념의미론을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개념의미론에서는 개념 함수와 특질, 부가어 규칙 등으로 통사구조와 의미구조를 연결하여 설명하였는데, 동사의 어휘 개념구조는 본원적인 의미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논항과 의미 원소의 유기적 결합을 나타내고, 통사구조와 별도로 존재하지만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연결 이론을 통해 소유구문의 개념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개념의미론에서는 문법 조직을 하나의 개념구조를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부가어 대응 규칙을 통해 통사구조와 문장 의미를 연결한다. 이 점은 소유구문의 격 구조가 달리 나타날 때도 하나의 어휘 개념구조로 설명할 수 있으며, 소유구문, 존재구문, 수여구문의 의미 특질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소유구문의 기본 개념구조를 “CAUSE([_{Thing} α]^A, [Go_{Poss}([_{Thing} β], [TO [α]])]), AFF⁰([_α]^A,)”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은 대상이 처소에 위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 특질 poss를 공통적으로 어휘기재항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존재 구문, 소유 구문, 수여 구문이 일정한 의미적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라는 개념을 통해 그 연관성을 포착하였다.

▮주제어 : 소유, 소유동사 구문, 의미 구조, 어휘 개념 구조, 수여동사 구문, 인접성

<참고문헌>

- 고석주(1996), 「'있다' 구문에 대한 연구」, 『국어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 고석주(2007), 「'있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어휘개념구조 표상을 중심으로」, 『한말 연구』 제20집, 한말연구학회, 1~25면.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명철(2004), 「소유관계와 존재동사-존재동사에 의한 소유관계의 표현」, 『독어교육』 제29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73~195면.
- 김기혁(2006), 「국어 지명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제271집, 한글학회, 51~76면.
- 김동석·김용하(2001), 「존재/소유 구문의 논항 구조」, 『우리말글』 제22집, 우리말글학회, 1~17면.
- 김명희(1987), 「{의}의 의미 기능」, 『언어』 제12-2집, 한국언어학회, 248~260면.
- 김영미(1995), 「“있다”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신(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제6집, 형태론, 43~65면.
- 김천학(2009), 「현대국어 ‘있다’와 관련된 상적 호응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141집, 어문교육연구회, 111~131면.
- 김천학(2012), 「소유 관계와 소유 구성」, 『한국어 의미학』 제39집, 한국어의미학회, 125~148면.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제3집, 국어학회, 93~117면.
- 범금희(2002), 「{어 가지고}와 관련된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2) - {어 가지고}와 {어서}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30집, 배달말학회, 23~40면.
- 서정수(1991), 「플리말 ‘있/계시(다)’에 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손혜옥(2012), 「‘가지다’ 구성의 문법화에 대한 공시적 분석」, 『한국어학』 제55집, 한국어학회, 207~238면.
- 송병우(2005), 「‘소유’와 ‘존재’ 표현으로서의 ‘有」, 『새얼어문논집』 제16집, 새얼어문학회, 321~338면.

- 신선경(1996), 「'있다'의 소유 구문에 대한 소고」, 『울산어문논집』 제11집,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65~190면.
- 신선경(1998),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구조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석(1992), 「한국어 동사의 어휘구조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석(1997), 『개정판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 양정석(2013), 「개념의미론과 합성성」, 『한국어 의미학』 제40집, 한국어 의미학회, 1~41면.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수련(2000), 「풀이소유일의 도식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7집, 한국어의미학회, 115~148면.
- 이수련(2003), 「양도·비양도성 소유 표현의 원형성 - 'X에 Z가 있다'를 중심으로-」, 『새얼 어문논집』 제15집, 새얼어문학회, 231~261면.
- 이수련(2004), 「'가지다'의 문법화 양상 연구」, 『새얼어문논총』 16, 새얼어문논집, 239~263면.
- 이수련(2006), 『한국어 소유 표현 연구』, 박이정.
- 이정애(1998), 「"가지고"의 문법화 과정」, 『언어』 제23-1집, 한국언어학회, 87~110면.
- 이종열(2008), 「'가지다' 구문의 의미 습득과 실현 양상」, 『한국어 의미학』 제27집, 179~198면.
- 이춘근(1997), 「'있다'의 의미·통어」, 『국어국문학』 제24집, 국어국문학회, 1~21면.
- 임근석(2012),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소유 서술구문 연구를 위한 기초적 논의」, 『우리말글』 제55집, 우리말글학회, 45~76면.
- 임지룡(1990),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
- 장미라(2002), 「국어 소유 상태 구문의 실현 양상」, 『국어국문학』 제130집, 국어국문학회, 59~82면.
- 전영철(2000), 「한국어 존재문의 구성」, 『언어학』 제27집, 한국언어학회, 261~280면.
- 전재연(2001), 「불어와 한국어의 "소유"구문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제47-1집,

한국불어불문학회, 577~605면.

정태구(2007), 「국어 존재구문의 의미와 사건구조」, 『언어』 제32-4집, 한국언어학회, 779~801면.

조경순(2008), 「국어 수여동사 연구 - 소유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27, 한국어의미학회, 267~289면.

조경순(2010), 「수여동사의 합성 현상과 소유 변화 양상 연구-어근주다 합성 수여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4집, 한국언어문학회, 119~145면.

최신혜(2013), 「한국어와 중국어의 소유·존재 개념 표현 고찰」, 『중국어문논총』 제56집, 중국어문연구회, 105~128면.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Heine, B(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s, MIT Press.

Lehmann, C. & Yong-Min Shin & Verhoeven, E.(2000), Direkte und indirekte Partizipation, Lincom Europa, München & Newcastle.

Seiler, H(2008), Possession: Variation and Invariance, Universality in language beyond grammar, Universitätsverlag Brockmeyer.

사전류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8), 연세 한국어사전.

[Abstract]

A study of a syntactic and semantic analysis of possessive verbs constructions and a proximity with dative verbs constructions

Jo, Kyung-sun

The semantic features are structuralized into the semantic structures, and such semantic structur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yntactic structures. Through the diverse syntactic/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entences, it is possible to precisely approach and analyze semantic featur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yntactic/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possessive construction involving possession and to set the subject-conceptual structure of the possessive construction. The sentence meaning of the possessive construction can be defined as “the agent with a will dominantly owns the target”. To lexical-internal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session, the conceptual semantics(Jackendoff) is used as a methodology. In addition, the possession is semantically closely related to the existential construction and ditransitive construction. The existential, possessive and ditransitive constructions are detected through the concept that they are based on a fixed semantic correlation.

【Key words】 : Possession, Possessive Verbs Constructions, Semantic Structure, Lexical Conceptual Structure, Dative Verbs Constructions, Proximity

조경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puppetjks@jnu.ac.kr

이 논문은 2017년 1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